

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20, Vol. 21, No. 2, pp. 613-639.

<https://doi.org/10.15753/aje.2020.06.21.2.613>

학령기 대상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동향 및 질적지표 분석

임유하(林柚晙)*

지 은(池 銀)**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대상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물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1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미국 교육부의 교육과학 연구소에서 설립한 WWC(What Works Clearinghouse)에서 제시하는 질적지표에 기반하여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보다 많았다, 둘째, 실험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와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실험환경은 주로 교실이었고, 주된 개입전략은 토론과 창작활동이었다, 넷째, 소수의 프로그램은 종속변인으로 학업성취도와 공감 능력 등을 함께 설정하였다. 다섯째, 측정 도구는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었다. 여섯째, 모든 프로그램은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일곱째, 질적지표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선별기준, 효과 크기, 유지효과 확인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후속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령기,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질적지표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dada1310@daum.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ejj@inha.ac.kr)

1. 서론

현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과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정책기획위원회, 2019).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 정책, 균형인사 추진계획 등의 세부정책들이 수립되기도 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인사혁신처, 2019).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다문화 전문 학회가 만들어지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선곡유화, 박순덕, 이영선, 2013). 이렇듯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반다문화주의 정서와 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인식개선 방안도 꾸준히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은 여전히 부족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가족부(2019)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일반 국민의 전체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시민 행동의지는 긍정적 향상이 있으나 실제 이주민들과의 직접적 교류와 실질적 통합에서는 저하된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0.9%였고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여전히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단일민족성을 지향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주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편견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김태완, 조운용, 이연옥, 이해진, 2016; 백승대, 안태준, 2013; 송지현, 이태영, 2012).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다른 민족·이주민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며 인종, 성, 계급 등에 기반한 광범위한 차별과 배타성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야기하고 있다(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김현미, 2018).

따라서 이주민과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다문화 역량은 핵심적인 영역으로 설명되며 그 하위 요소로서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백승대, 안태준, 2013; 원숙연, 문정희, 2016; Bennett, 2009).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집단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며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감수성 모두를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다(원숙연, 문정희, 2016, p.146). 다문화 역량은 크게 정서(다문화 감수성), 인지(다문화 지식), 행동(다문화 기술)으로 구성된다. 다문화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Bennett, 1993).

학교현장도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9), 소위 ‘다문화 학생’이라 불리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

학교폭력과 같은 어려움은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며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한다(박선희, 2010; 신우진, 윤창영, 2010). 여성가족부(2019)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8.2%로 지난 2015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의 5.0%에 비해 3.2% 증가했다. 초등학교 고학령기인 만 9~11세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에게서 학교폭력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차별 경험은 자살 생각을 높이고(김민경, 2019),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스트레스는 이들의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오정아, 2019). 소수집단인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역량 함양은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학령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이므로 다문화 역량을 위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집단들을 위한 교육이며 서로 다름, 즉 성, 계급, 인종 등에 의한 차이를 존중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당위적·실천적 의미의 교육이다(황갑진, 2010).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다문화 이해를 범교과 주제로 포함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다문화가 포함되었다. 2015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이 핵심역량 및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되었다. 중·고등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가 교육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교육부, 2015). 다문화 교육에서 말하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은 시민성으로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르치는 것이다(Banks, 2017; Nguyen, 2008). 다문화 역량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인 능력은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이며, 교육과정에서 이를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옥순, 2008).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김미진, 김정은, 2018; 박하나, 2015)을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 다문화 경험,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와 같은 변인들과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또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메타연구(김민웅, 황재동, 2018)에서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대상이 된 논문들이 제시한 연구 설계의 질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조사 변인 또한 광범위하여 다문화 감수성·수용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아니었다. 즉, 국내에서 다문화 감수성·수용성과 관련한 연구의 개괄적인 동향 분석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목적으로 초·중·고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질적지표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검토 결과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다룬 연구 논문의 질을 질적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Gersten, Fuchs, Compton, Coyne, Greenwood, Innocenti(2005)와 What Works Clearinghouse: WWC(2010)는 집단설계와 준집단 설계 연구의 질적지표를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국내 초등수학 중재연구 분석(손승현, 문주영, 서유진, 이주영, 2011)이 시도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루어진 초중고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개괄적인 특징을 탐색하였고, 질적지표(Gersten et al., 2005; WWC, 2010)에 의거하여 개별 연구의 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역량 기반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함양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함양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연구설계의 질적지표(WWC, 2010)를 얼마나 충족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은 세계시민으로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인종·문화의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이다(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송영호, 윤인진, 2011). 윤인진(2010)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지닌 집단과 공존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였다.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2012)은 출신지역,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차등 없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보편성과 자기와 다른 문화와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 편견 없이 상호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성의 세 가지 차원에 입각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과거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정의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을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김미진과 정옥분(2010)은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가정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차원, 다문화 가정의 입장, 생각, 행동에 공감하는 정서 차원, 다문화 가정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다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 집단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상대방의 행동, 관점, 감정이 자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영역의 태도이다(Chen & Starosta, 2000). 또는 국가와 민족 간에 문화 장벽과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 효율적·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능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Hammer, Bennett, Wiseman, 2003). 정서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다문화 감수성을 정서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 인지, 동기, 행동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예랑, 우수명, 2011; Earley & Peterson, 2004). 이와 같은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매우 다양하나 국내에서는 주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가지 영역(안상수 외, 2012; 정해숙, 안상수, 권소영, 2014)의 측정과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개방성, 다문화적 공감, 다문화적 관계 형성능력의 네 가지 하위영역(김미진, 정옥분, 2010), 혹은 상호작용 참여도, 문화차이 존중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도, 상호작용 주의도의 다섯 가지 영역(Chen & Starosta, 2000)으로 측정하는 도구들이 쓰이고 있다.

2. 다문화 수용성·감수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여성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에서는 정부 차원의 다문화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최충욱, 조인제, 2010), 교육학 분야에서도 학교 현장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채영란, 유승우, 2014). 국내에서 초·중·고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동화, 그림책, 문학작품 활용 프로그램이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편견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김하나, 이인재, 2014; 서재복, 임명희, 2019). 또한 미술, 사회, 수학, 실과 등의 교과활용 혹은 교과통합 활동 안에서 교수자료와 매체를 통해 다문화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김영선, 강윤정, 2017; 김주현, 장인실, 2016; 김준영, 이윤정, 2012).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가상현실 활용 감상교육(신소희, 김효정, 2019), 포레도우미 활동(이길주, 김연경, 함은혜, 2018), 동아리 활동(이경자, 이윤정, 2018)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초등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김민웅, 황재동, 2018)에서는 총 36편의 관련 실험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 크기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과영역보다 교과 영역에서의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민웅과 황재동(2018)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다문화적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데 치우쳐있고, 이를 넘어서 다양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 개인·심리적 변인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문화 역량 증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다문화 지식, 다문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arden & Cashwell, 2014; Zeleke & Myers, 2018), 집단 간 대화프로그램(Hopkins & Domingue, 2015), 다문화 음악치료프로그램(Abril, 2006)이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다. 이 밖에도 The reading classroom explorer(RCE), 가상환자 시뮬레이션, International Leadership in Educational Technology(ILET),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롤플레이게임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다문화 교육 방법이 제시되었다(Ferdig, Coutts, DiPietro, Lok, & Davis, 2007).

III. 연구 방법

1.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함양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분석에 포함할 대상 문헌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국내 논문의 주요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DBpia에 200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간된 KCI(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는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적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유능성’ 이었으며 검색 결과 RISS는 764편, KISS는 199편, Dbpia는 255편이 검색되었다. 둘째, 1차 선별 작업을 통해 세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되는 논문과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초록을 확인하여 중재 연구가 아닌 경우, 초중고 학령기 대상이 아닌 경우,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변인으로 보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여 25편을 1차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셋째, 선별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연구들을 확인하는 2차 선별 과정을 거쳤고, 전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제외하는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7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선정 및 배제 기준을 거쳤다. 첫째, 분석 기간은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고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문화 전문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연구의 양적인 확대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선곡유화 외, 2013)한 것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KCI(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술대회발표 자료는 배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은 학령기 학생으로 설정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 혹은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들로만 이루어진 연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을 학령기 학

생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문화 수용 태도는 어린 시절에 내면화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 수용 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학령기에 이를 발달시키는 것은 중요하기(민무숙 외, 2012)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적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총 17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2. 논문 분석 기준과 틀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이란 특정한 연구문제를 탐색하는데 체계적으로 문헌 검색과 포함기준을 만들고 그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Petticrew & Roberts, 2008).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 틀 설정을 위해 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수용성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김미진, 김경은, 2018; 박하나, 2015)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네 가지의 구분에 따라 개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구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분석 틀

구분	내용
연구 대상	대상인원, 연령
연구 설계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
개괄적 특성	중재자, 회기, 장소
	게임·체험활동, 역할극, 창작활동, 시청각자료 감상, 토론, 교수자료 프로그램 내용 및 목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a$
종속변인 및 측정도구	다문화 감수성 척도, 다문화 수용성 척도 연구결과
질적지표	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 연구대상자 선별기준, 연구대상자의 유사성, 수행 및 운영자 정보기술, 연구실행 기술, 관련 측정도구 활용, 자료수집의 동일성, 통계분석 기술, 효과크기 제시, 유지효과 측정

첫째, 연구 대상은 대상인원과 학년·연령을, 둘째, 연구 설계는 분석대상논문이 모두 집단연구인 관계로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와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로 나누었고, 셋째, 독립변인은 중재자, 회기, 장소에 대한 정보를, 넷째, 종속변인은 및 측정도구는 설정된 종속변인과 측정도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Gersten 외(2005)와 WWC(2010)가 제안한 질적지표를 활용하

여 국내 연구에서 수정한 지표(서유진, 나경은, 2012; 연준모, 2019)를 기준으로 연구의 질을 평가하였다. 연준모(2019)는 그동안 특수교육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질적지표를 간절하게 수정하여 일반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 분석에 적용했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집단대상 교육 프로그램 연구물의 질을 검증하고자 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지표는 (1) 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 (2) 연구대상자 선별기준, (3) 연구대상자의 유사성, (4) 수행 및 운영자 정보 기술, (5) 연구실행 기술, (6) 관련 측정도구 활용, (7) 자료수집의 동일성, (8) 통계분석 기술, (9) 효과크기 제시, (10) 유지효과 측정 등으로 제시되었다.

3. 분석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간 일치도(inter-observer agreement)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상담을 전공한 박사 1인과 문헌분석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박사과정 1인, 총 2명은 질적지표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위해 전체 논문 17편중 1편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이후 나머지 16편의 논문을 각자 분석하여 항목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frac{\text{일치한 분석 항목 수}}{\text{일치한 분석 항목 수} + \text{불일치한 분석 항목 수}} \times 100$ 로 구한 값이다. 그 결과 대상 논문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약 95%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학령기 대상 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총 17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2> 연구 개관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2008~2014년까지 출판된 논문은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구의 경우 3편,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구의 경우 2편이었다. 2015~2019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은 다문화 감수성과 관련한 경우 5편,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경우 7편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목표 기술로 한 실험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연구 개관

No.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독립변인	프로그램 내용, 목표	중속변인(하위변인)	측정도구	연구결과
1	서재복 임명희 (2019)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N=52(실험 =26, 통제 =26) ·초등학교5학년	·방법: 교과통합 다문화동 화교육 ·전략: 토론, 창작 ·중재자: 연구자 ·회기: 15회 ·장소: 학급	다문화 동화책을 활용한 문제중심학습(PBL)을 통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위 한 실천을 유도하고 다문 화 인식과 감수성의 변화 를 조사하고자 함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김옥순(2008) 번 안 다문화 감수성 척도(Chen & Sta rosta, 2000)와 정 해숙(2014)의 다 문화 감수성척도 혼합	다양성의 모든 하위요인(문화개방성, 국민정 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에서 유의한 증가 관계성의 모든 하위요인(일방적 동화기대, 거 부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서 유의한 증가 보편성의 모든 하위요인(이중적 평가, 세계시 민 행동의지)에서 유의한 증가
2	서재복 장효순 (2018)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N=44(실험 =21, 통제 =23) ·초등학생	·방법: 놀이, 독서기반 다 문화프로그램 체험교육 ·전략: 게임, 시청각자료 감상 ·중재자: 연구자 ·회기: 15회+1박2일 체험 ·장소: 학급	다문화 매체를 활용하여 심각적인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독서와 놀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다 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함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다문화 감수성척 도(정해숙 외, 201 4)와 다문화수용 성 진단도구(KM CI-A) 발췌 혼합	다양성의 모든 하위요인(문화개방성, 국민정 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에서 유의한 증가 관계성의 모든 하위요인(일방적 동화기대, 거 부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서 유의한 증가 보편성의 모든 하위요인(이중적 평가, 세계시 민 행동의지)에서 유의한 증가
3	김현경 (2018)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N=162 ·중학교1학년	·방법: 자유학기제 시민교 육 프로그램 ·전략: 게임, 시청각자료 감상, 창작, 토론 ·중재자: 전문강사, 교사 ·회기: 30회 ·장소: 학급	교수방법 측면에서 ‘체험’ 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교 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 문화 감수성 함양에 미치 는 효과, 다른 시민교육 프 로그램과의 효과성 차이,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영 향을 미치는 외적변인을 살펴봄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다문화 감수성척도 (정해숙 외, 2014)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세 영역 모두 사후 검사에서 증가가 나타났고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 교육, 금융교육 프로 그램보다 다문화 감수성 함양에 효과가 있었 으나 그 향상 정도의 차이는 프로그램에 기 인하지 않았음 프로그램의 외적변인 중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하는 참여경험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4	손녕희 선은정 조인제 (2017)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N=647 ·중, 고등학 생	·방법: 교과연계 활동기반 다문화 감수성 증진프 로그램 ·전략: 토론, 시청각자료 감상, 교수자료 ·중재자: 다문화 전문강사 ·회기: 2회 ·장소: 학급	교과과정(사회, 사회문화, 도덕)과 연계되도록 구성된 학습자 활동위주의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다문화 감 수성 역량의 변화를 알아 보고자함	다문화 감수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청소년다문화 감 수성 증진 프로그 램 효과성 검증도 구(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2014) ·활동지	다양성 영역에서 중학생은 인식, 수용의 유의 한 증진, 고등학생은 수용, 관용이 유의한 효 과를 보임 관계성 영역에서 중, 고등학생에게서 소통)공 감 순의 유의한 교육효과를 보임, 반면 협력 의 2가지 세부 문항은 사전보다 감소됨 보편성의 모든 하위요인(이중적 평가, 세계시 민 행동의지)에서 유의한 증가

No.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독립변인	프로그램 내용, 목표	종속변인(하위변인)	측정도구	연구결과
5	박세훈 장인실 (2016)	단 일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10 ·초등학교6학 년	·방법: 스마트기기 활용 다문화 프로그램 ·전략: 토론, 창작, 시청각 자료 감상 ·중재자: 연구자 ·회기: 40회 ·장소: 학급, 컴퓨터실	교과 간 교육과정을 연계 하여 지식습득-태도발전- 실행게임 단계로 구안한 프로그램을 태블릿 PC, 스 마트 폰, 컴퓨터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적 지식, 다 문화 상호작용 실천, 다문화 존중 태도, 다문화 점검 및 평 가)	·다문화 감수성척 도(이철현, 2013) ·교수일지	다문화 감수성 점수 전체에서 긍정적 상승이 있었고 하위 영역별로 다문화적 지식, 다문화 존중 태도, 다문화 상호작용 실천, 다문화 점 검 및 평가 능력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남
6	김하나 이인재 (2014)	단 일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25 ·초등학교3학 년	·방법: 온라인그림동화 활 용 상호문화적 감수성 신장 프로그램 ·전략: 게임, 역할극, 토론 ·중재자: 연구자 ·회기: 20회 ·장소: 학급	올리볼리 온라인 그림동화 를 활용한 구안 내용을 프 랑스 상호문화교육 방법으 로 구성하여 만든 프로그 램이 초등학교생의 상호문화 적 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존중성' 요소의 함양에 어 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구 함	다문화 감수성 (개방성, 수용성, 존 중성)	상호문화적 감수 성 척도(선행연구 발췌 제작)	상호문화적 감수성의 하위영역 중 '존중성'에 서만 의미 있는 신장을 보임
7	배지영 (2014)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N=122(실험 =62, 통제 =60) ·초등학교4학 년	·방법: 문학작품 읽기를 통한 문화간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전략: 토론, 교수자료 ·중재자: 연구자 ·회기: 32회 ·장소: 학급	독자반응이문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학작품의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상황을 활 용하여 이를 시각화한 도 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영어 읽기능력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도, 문화차이 존중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도, 상호작용 주의도)	·어휘지식&읽기능 력검사(선행연구 발췌 제작) ·다문화 감수성척 도(Chen & Staro sta, 2000)를 변안 한 초등용 문화 간 감수성 검사지 (배지영, 2012)	어휘지식, 읽기능력 전반적인 영어 읽기 능력 이 향상됨 다문화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상 호작용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특히 상호작용 주의도 에서 큰 차이를 보임 문화 간 감수성 영역에서 글로벌 문학작품을 활용한 읽기 학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효과적이었음
8	배철웅 강용구 송해성 (2012)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N=72(실험 =36, 통제 =36) ·중학교3학년	·방법: 경험학습기반 언어 문화통합(LCI)프로그 램 ·전략: 퀴즈, 시청각자료 감상, 교수자료 ·중재자: 연구자 ·회기: 30회 ·장소: 학급	언 어 문 화 통 합 (Language-Culture Integration: LCD)이라는 문 화수업을 구안하고 문화 간 감수성과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영어 학업성취도 ·다문화 감수성 (상호작용 참여도, 문화차이 존중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도, 상호작용 주의도)	·영어시험지 ·다문화 감수성척 도(Chen & Staro sta, 2000) 번역판	영어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평균이 상승했고, 실험집단의 평균 향상도가 훨씬 높았음 다문화 감수성의 모든 하위요소인 상호작용 참여, 문화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 작용 향유, 상호작용 주의에서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남

No.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독립변인	프로그램 내용, 목표	종속변인(하위변인)	측정도구	연구결과
9	신소희 김효정 (2019)	단 일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24 ·고등학교3학 년	·방법: 가상현실 활용 감 상교육 ·전략: 창작, 토론, 교수자 료 ·중재자: 연구자 ·회기: 6회 ·장소: 학급	미술과 교육과정을 활용하 여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을 3차원 입체영상인 가상현 실 제작물로 표현하고 다 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청소년 다문화 수 용성 척도(민주숙 외, 2012) ·실기평가물 분석	다문화 수용성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특 히 다양성에서 가장 높은 향상을 보임
10	함형준 김정원 (2018)	통 계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50(실험 =25, 통제 =25) ·초등학교6학 년	·방법: 전래동화 활용 다 문화 수용성 교육 ·전략: 게임, 역할극, 창 작, 토론 ·중재자: 연구자 ·회기: 12회 ·장소: 학급	다양한 국가의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계 시하는 핵심역량 중 '심미 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역 량 함양에 중점을 둔 프로 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초등학생 다문화 수용성 진단(김미 선, 2014)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 났으며 하위요인 중 다양성, 보편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계성은 유의한 변화 가 없었음
11	이길주 김연경 함은혜 (2018)	통 계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132(실험 =65, 통제 =67) ·초등학교2-4 학년	·방법: 다문화 학급 토래 도우미 운영 ·전략: 학습, 의사소통 지 원 ·중재자: 담임교사 ·회기: 3개월 운영 ·장소: 학급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문 화 가정 학생을 일반학생 들이 일정 기간 전담하여 도와주는 토래도우미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감능 력과 다문화 수용성 함양 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 차 별민감성, 개방성) ·공감능력	·공감능력척도(박 성희, 1996)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 척도(김나영, 2012)	공감능력의 향상하기, 공감적 각성 영역이 향 상되었고 공감적 관심은 1차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됨 다문화 효능감, 차별민감성 영역에서 유의한 긍정적 향상을 보임.
12	이경자 이윤정 (2018)	단 일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20 ·초등학교1-3 학년	·방법: 생활문화 중심 다 문화 동아리활동 ·전략: 게임, 교외활동, 창 작, 토론 ·중재자: 연구자 ·회기: 20회 ·장소: 학급	생활문화, 인사 및 식사에 점문화, 놀이문화, 예술문 화 중심으로 활동별 목표 를 설정하여 구성된 다문 화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다문화 수용성 척 도(김미진, 정옥분 2010) ·활동지, 관찰	다문화 수용성 전체, 4가지 하위영역에서 유 의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문화 개방 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임
13	김영선 강윤정 (2017)	통 계 집 단 사 전 사 후 설계	·N=38(실험 =19, 통제 =19) ·중학교2학년	·방법: 미술, 사회 통합수 업 ·전략: 교수자료, 창작 ·중재자: 담임교사 ·회기: 8회 ·장소: 학급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한 광고디자인 제작하기를 주 제로 미술과와 사회과를 연계한 통합수업을 실시한 후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 편성)	청소년 다문화 수 용성 척도(민주숙 외, 2012)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하 위요인 중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에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

No.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독립변인	프로그램 내용, 목표	종속변인(하위변인)	측정도구	연구결과
14	김주현 장인실 (2016)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설계	·N=59(실험 =29, 통제 =30) ·초등학교6학 년	·방법: 민속수학, 비판적 수학 기반 다문화교육 ·전략: 교수자료 ·중재자: 담임교사 ·회기: 20회 ·장소: 학급	민속 수학과 비판적 수학을 기반으로 수학교과를 재구성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실행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	·수학학업성취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다문화 수용성 척도(김미진, 정옥분 2010) ·수학 학업성취도 검사 ·성찰일지, 인터뷰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효과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 중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다문화 인식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15	남혜림 박선호 (2015)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N=32 ·초등학교5학 년	·방법: 아동문학활용 협력 학습 ·전략: 토론, 창작 ·중재자: 담임교사 ·회기: 32회 ·장소: 학급	협력 읽기, 협력 쓰기 단계로 구성된 초등영어 협력 학습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초등학생의 영어능력과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영어능력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영어 읽기, 쓰기 평가지(PELT Jr. 1급, JET S/W 모의평가 문항 참고) ·다문화 수용성 척도(김미진, 정옥분 2010)	영어 읽기, 쓰기 능력 모두 향상됨 다문화 수용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 하위 요인 중 개방성, 관계형성 능력에서 효과가 높았음
16	윤소연 유형근 조용선 (2013)	통계 집단 사전 사후 설계	·N=54(실험 =27, 통제 =27) ·초등학교5학 년	·방법: 집단상담 활용 다 문화 교육 ·전략: 역할극, 시청각자료 감상, 창작활동, 게임· 체험활동 ·중재자: 담임교사 ·회기: 12회 ·장소: 방과 후 학급	체험중심, 활동중심으로 구성된 학급단위의 통합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다문화 수용성 척도(김미진, 정옥분 2010)	다문화 수용성 전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모든 하위 영역이 향상됨
17	조상미 외 (2012)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N=12 ·초등학교1-4 학년	·방법: 문화수용성 통합 프로그램 ·전략: 퀴즈, 게임, 토론 ·중재자: 연구자, 보조자 ·회기: 6회 ·장소: 강의실	다섯 가지 다문화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실행하여 다문화 수용성(다문화 인식, 개방성)과 공감능력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함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	·다문화 수용성 척도(김미진, 정옥분 2010) ·인터뷰	다문화 인식의 전체가 향상되었으며 일반가정 아동보다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인식정도가 높고, 급격한 증가를 보임 다문화 개방성 전체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나 일반가정 아동에게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다문화 공감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표 3〉 연도별 분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해당 논문	다문화 감수성				8		6 7		5	4	2 3	1	
	다문화 수용성				17	16		15	14	13	10 11 12	9	
N					2	1	2	1	2	2	5	2	17
%					11.7	5.8	11.7	5.8	11.7	11.7	29.4	11.7	100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연구에 참여한 학령기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연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12편(70.5%)이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29.4%)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연령 범위를 분석한 결과 학령기 대상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647명의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설계를 살펴보면 총 8편이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하였고, 총 9편의 연구가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하였다.

〈표 4〉 대상별 분류

학년	해당논문 번호		N	%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초등학생	1, 2, 5, 6, 7	10, 11, 12, 14, 15, 16, 17	12	70.5
중·고등학생	3, 4, 8	9, 13	5	29.4
	계		17	100

2) 독립변인

분석대상 논문들의 개입방법 및 전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종속변인(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감수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서·문학작품활용 중심 프로그램이 6편, 교과 연계·교과 활용 프로그램이 6편, 비교과 체험활동프로그램이 3편, 통합적 활동 프로그램이 2편으로 나타났다. 독서·문학작품활용 중심은 다문화 문학작품 및 텍스트 자료를 중점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고, 교과 연계·

교과 활용은 도덕, 미술, 사회, 수학 등의 교과를 활용하거나 두 교과의 학습 내용을 통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교과 시간에 실행한 것이며, 비교과 체험활동은 교과 시간 외에 실행된 자유학기제 자율 활동, 포레도우미,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고, 통합적 활동프로그램은 교과와 관계 없이 개발한 개별프로그램으로 한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다양한 전략을 통합하여 구안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개입방법 유형에 따른 분류

구분	해당논문 번호		계(%)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독서·문학작품 활용 프로그램	1, 2, 6, 7	10, 15	6(35.2)
교과 연계·교과 활용 프로그램	4, 5, 8	13, 14, 9	6(35.2)
비교과 체험활동프로그램	3	11, 12	3(17.6)
통합적 활동프로그램		16, 17	2(11.7)
	계(%)		17(100)

프로그램 진행 회기는 최소 2회, 최대 40회였고, 10회기 미만이 4편, 10~20회기가 7편, 30회기 이상이 4편, 정확한 회기를 알 수 없는 논문이 2편이었다. 개입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8가지로 나뉘었다. (1)게임·체험활동은 퀴즈, 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같은 문화체험 및 캠페인, (2)역할극은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공감하는 활동, (3)창작활동은 글쓰기, 미술작품 감상 및 그림 그리기, 콘텐츠 제작,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및 공예활동, (4)시청각자료 감상은 사진, 영화 및 관련 영상 시청, (5)토론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 (6)교수자료 활용 강의는 중재자가 교수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자료를 중심으로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전략, (7)테크놀로지 활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8)기타는 포레도우미 활동을 의미한다.

게임·체험활동이 9편, 역할극이 5편, 창작활동이 15편, 시청각자료 감상이 11편, 토론이 16편, 교수자료 활용이 11편 테크놀로지 활용이 2편, 기타 1편이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기술인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따른 개입 전략의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토론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입전략으로 총 16편의 논문이 해당하였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8편,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8편의 연구가 이를 사용했다.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언어적 기법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토론 전략을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개입 기법 및 전략에 따른 분류

구분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게임·체험활동		○					○		○		○		○		○	○	○	9(52.9)
역할극		○	○				○				○						○	5(29.4)
창작활동	○	○	○	○	○	○	○		○	○		○	○	○	○	○	○	15(88.2)
시청각자료 감상		○	○	○	○	○			○			○	○			○	○	11(64.7)
토론	○	○	○	○	○	○	○	○	○	○		○	○	○	○	○	○	16(94.1)
교수자료 활용강의		○		○	○	○	○	○	○				○	○	○		○	11(64.7)
테크놀로지 활용						○				○								2(11.7)
기타												○						1(5.8)

3) 종속변인 및 측정도구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석대상 논문들을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만을 종속변인으로 한 논문과 이와 함께 다른 변인도 살펴본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감수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된 종속변인은 영어 어휘 지식과 읽기 능력, 영어 학업성취도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에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된 종속변인은 공감 능력, 수학 학업성취도,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이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편에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종속변인 유형

구분	논문 수				계(%)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α	
초등	4	1	4	3	12(70.5)
중·고등	2	1	2		5(29.4)
전체(%)	6(35.2)	2(11.7)	6(35.2)	3(17.6)	17(100)

분석대상 논문들의 측정도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척도가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하위 요소는 (1)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4; 정해숙 외, 2014)와 (2)상호작용 참여도, 문화차이 존중도,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도, 상호작용 주의도의 다섯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Chen & Starosta, 2000), (3)다문화적 지식, 다문화 상호작용 실천, 다문화 존중 태도, 다문화 점검 및 평가의 네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이철현, 2013)와, 그 외 연구자 자체제작 도구와 관찰, 면담을 통한 측정방법이 사용 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주로 (1)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김미선, 2014; 민무숙 외, 2012; 박재욱, 2013) (2)다문화 관계형성, 다문화 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김미진, 정옥분, 2010) (3)다문화 효능감, 차별민감성, 개방성(김나영, 2012)의 하위요소로 구성된 척도와 인터뷰, 메모, 관찰과 같은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2. 질적지표 충족 분석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17편의 연구의 질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질적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 영역에서 총 16편의 연구가 대상자의 구체적인 배경 정보 즉, 성별, 연령 및 학년, SES(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세부적인 배경 예를 들어 해외거주 경험이나 다문화 접촉경험 등에서 3개 이상의 정보를 기술하여 기준을 충족시켰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별 기준은 대상자를 선정한 구체적인 모집 및 선정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가를 본 것으로 이를 충족한 연구는 7편이었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유사성은 통제집단사전사후 설계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인 유무이며 9편의 논문 중 8편이 이를 만족시켰다. 넷째, 수행 및 운영자 정보기술은 프로그램 수행자의 직업, 프로그램의 훈련도 등의 정보기술 여부로 11편이 이를 충족하였다. 다섯째, 연구실행 기술은 실험내용이 명백하고 자세하게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한 것으로 총 16편이 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관련 측정 도구의 활용에서는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로 17편의 논문이 해당되었다. 일곱째, 자료수집의 동일성은 사전 사후에 동등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17편의 논문이 이를 충족시켰다. 여덟째, 통계분석 기술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는지 여부로 17편이 이를 충족시켰다. 아홉째, 효과 크기 항목을 충족시킨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지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질적지표 분석결과

	영역	논문 번호																	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연구 대상자 기술	① 연구대상자의 정보 (인구통계학적정보 예: 성별, 연령, 학년, SES, 인종 등)	○	○	○	○	○	○	○		○	○	○	○	○	○	○	○	○	16	94.1
	② 연구대상자 선별기준						○	○			○	○				○	○	○	7	41.1
	③ 연구대상자의 유사성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	○	○						○	○		○	○		○	○				8
실험 설계 및 결과 측정	④ 수행 및 운영자 정보기술			○	○	○	○	○			○		○		○	○	○	○	11	64.7
	⑤ 연구실행 기술 (실험방법의 명백한 기술)	○	○		○	○	○	○	○	○	○	○	○	○	○	○	○	○	16	94.1
	⑥ 관련 측정도구 활용 (타당한 평가도구 사용)	○	○	○	○	○	○	○	○	○	○	○	○	○	○	○	○	○	17	100
	⑦ 자료수집의 동일성 (자료수집방법의 동일성)	○	○	○	○	○	○	○	○	○	○	○	○	○	○	○	○	○	17	100
자료 분석	⑧ 통계분석 기술 (적절한 통계방법 사용)	○	○	○	○	○	○	○	○	○	○	○	○	○	○	○	○	○	17	100
	⑨ 효과크기 제시																			
	⑩ 유지효과 측정																			
	계	6	6	5	6	6	7	8	5	5	8	7	6	6	7	7	7	7		
	%	60	60	50	60	60	70	80	50	50	80	70	60	60	70	70	70	7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연구 환경과 중재방법 및 전략, 종속변인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WWC(2010)에서 제안한 증거기반 질적지표를 얼마나 충족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다문화 감수성·수용성 증진을 위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대상은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이 시기를 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수용성을 내면화하기에 중요한 시기로 여긴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식, 태도, 행동을 함양하는 것(Banks, 2008)인데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갈등 해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문화 감수성·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이 중요하고, 이는 어린 시절에 내면화되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민무숙 외, 2012) 예방적 차원에서 이 시기의 다문화 교육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고등학생 시기가 상급학교 진학에 큰 관심을 쏟는 시기라는 국내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별 경험을 많이 보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여성가족부, 2019),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적용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설계를 살펴보면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8편),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9편)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는 통제집단을 두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처치 전후 검사를 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방법인데, 이는 단일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실험 처치의 효과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를 하고 실험 후 검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무작위 할당되어 단일집단사전사후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통제집단사전사후설계를 통해 내적타당도를 높이고 두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환경을 살펴보면 중재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구자와 담임교사였고 다문화 프로그램 전문 강사(2명)도 소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는 최소 2회에서 최대 40회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다수 연구의 실행 장소는 학급이었다. 프로그램의 방법과 전략은 독서·문학작품 활용 프로그램(6편)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다음으로는 교과 활용·교과 연계, 비교과 체험활동, 통합적 다문화 교육 등이 활용되었다. 분석대상 논문들의 개입 전략은 토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 창작활동과 시청각자료 감상이 다수 활용된 기법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기법을 활용했고,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글쓰기, 그리기와 같은 경험적 활동 또한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의 폭이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인 학령기 학생들에게 문학 읽기·쓰기 활동은 언어, 인지, 정의, 사회·정서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지윤정, 2012), 문학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해 책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 감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추상적인 개념학습보다도 독서와 글쓰기를 효과적인 매개체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서 종속변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들은 다문화 감수성과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단독으로 측정한 논문은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더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과영역과 공감능력을 함께 측정한 논문들도 5편이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성취(김동진, 2019; 은선경, 2016)와 공감능력(박지영, 조정자, 2016; 이윤정, 이정아, 2016)은 다문화 감수성·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교과연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능력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부모, 교사, 또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공동체 의식(김경근, 황여정, 2012; 김동진, 2019; 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함께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17편의 분석대상 논문들의 10가지 영역의 질적지표의 충족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10가지 지표(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 연구대상자 선별기준, 연구대상자의 유사성, 수행 및 운영자 정보기술, 연구실행 기술, 관련 측정 도구 활용, 자료수집의 동일성, 통계분석 기술, 효과 크기 제시, 유지효과 측정) 중 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 연구실행 기술, 관련 측정 도구 활용, 자료수집의 동일성, 통계분석 기술의 지표에서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정보기술’에서는 16편의 논문이 이를 충족시켰는데 대상자 선정기준과 성별, 연령, 학년, SES(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세부적인 배경 등 3개 이상의 정보를 기술하였는지를 고려했을 때 절반 이상의 연구들이 성별, 연령 및 학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였으나 그 밖의 연구대상자의 세부적인 배경정보를 함께 설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연구대상자 선별기준’을 충족시킨 연구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를 미뤄볼 때 참여자의 참여성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표집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른 교육 분야(예: 특수교육)의 연구물에서 주로 제시하는 질적지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선별기준, 중재제공자의 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킨 연구물이 발견되었다(서유진, 나경은,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연구물의 대부분은 해당 질적지표를 만족한 경우는 일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추후 이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연구 설계와 연구대상자 정보 및 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포함한 연구물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와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환경, 특히 해외거주 경험(이연옥, 장덕현, 2016), 다문화 교육 경험 유무(정명희, 박외병, 2014), 다문화 접촉경험(최가희, 2019) 등이 다문화 감수성·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배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행 및 운영자 정보기술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자의 간략한 직업 정보만 제시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숙련도 및 인식 수준은 충분히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자의 교육 정도와 수준을 제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석 대상연구 모두 ‘효과 크기’와 ‘유지효과측정’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들은 연구 결과에서 효과 크기가 측정 가능한 통계는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 크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효과 크기의 제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혹은 없다’의 통계적 유의성이 아닌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실제 차이를 수치화하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남상건, 2015) 추후 연구들에서는 이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지효과의 측정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루어지는 후속 검사로 이를 통해 실험 효과와 지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Gersten et al.,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사전-사후 검사만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적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설계의 타당도, 실험에 대한 관찰, 면담, 대화, 활동기록을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증점적으로 시도한 연구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물은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반영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통해 측정될 수 없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Creswell & Creswell, 2017). 질적 연구물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Creswell & Creswell, 2017; Gersten et al., 2005) 후속 연구물을 통해 질적 연구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 개정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김경근, 황여정(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나영(2012). 청소년용 다문화 인식 척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동진(2019). 중·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 **교육문제연구**, 32(3), 107-130.
- 김미선(2014). 초등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미진, 김경은(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1-27.
- 김미진, 정옥분(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민경(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2), 315-324.
- 김민웅, 황재동(2018). 초·중등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2), 1-24.
- 김영선, 강윤정(2017). 미술과와 사회과의 통합수업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형교육학회**, 63, 67-97.
- 김예랑, 우수명(2011). 국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9, 155-184.
- 김옥순(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1), 193-217.
-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 김주현, 장인실(2016). 민속수학과 비판적 수학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연구**, 34(4), 151-169.
- 김준영, 이윤정(2012).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1), 269-287.
- 김태완, 조운용, 이연옥, 이해진(2016).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1), 57-78.
- 김하나, 이인재(2014).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33, 1-25.
- 김현경(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문화감수성 함양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1(3), 147-168.

- 김현미(2018). 사회문제의 측면에서 본 다문화가족문제의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3(1), 61-72.
- 남상건(2015). 효과크기의 이해. **Hanyang Medical Reviews**, 35(1), 40-43.
- 남혜림, 박선호(2015). 다문화 아동문학을 활용한 초등영어 협력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초등영어교육**, 21(4), 171-198.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병주(2005). 임상연구의 설계와 방법.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1(2), 12-21.
- 박선희(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세훈, 장인실(2016).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991-1010.
- 박재옥(2013). 통합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아의 다문화 수용성 및 창의적 놀이행동.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박지영, 조정자(2016).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이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0), 439-448.
- 박하나(2015). '다문화 감수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2), 47-68.
- 배지영(2014). 글로벌 문학작품 읽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 및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도식(Graphic Organizer) 활용을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18(2), 411-439.
- 배철웅, 강용구, 송해성(2012). LCI 문화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13(4), 271-292.
- 백승대, 안태준(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21(2), 1-24.
- 서유진, 나경은(2012).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교육 중재연구 분석: 질적지표와 증거기반 중재 기준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435-466.
- 서재복, 임명희(2019). PBL 활용 다문화동화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효과. **교육논총**, 39(3), 107-125.
- 서재복, 장효순(2018). 놀이와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 다문화감수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교육종합연구**, 16(2), 47-68.
- 선곡유화, 박순덕, 이영선(2013).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다문화와 평화**, 7(2), 173-203.
- 손녕희, 선은정, 조인제(2017). 중·고등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23(6(B)), 715-748.

- 손승현, 문주영, 서유진, 이주영(2011). 증거기반 중재 구축을 위한 초등수학 중재연구의 질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291-321.
- 송영호, 윤인진(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송지현, 이태영(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9(3), 151-179.
- 신소희, 김효정(2019). 미술 감상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7(5), 233-243.
- 신윤진, 윤창영(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 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4(2), 1-14.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준모(2019). 학습부진 대학생 중재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질적지표 기반 분석. **사고개발**, 15(2), 77-106.
- 오정아(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학교사회복지**, 45, 159-182.
- 원숙연, 문정희(2016). 다문화 역량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9(4), 143-165.
- 유안나, 김순규, 이주재(201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221-228.
- 윤소연, 유형근, 조용선(2013). 일반가정 초등학교 고학년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아동교육**, 22(4), 171-185.
- 윤인진(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1) (Vol. 1). 서울: 이담북스.
- 은선경(2016).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0), 685-695.
- 이경자, 이운정(2018). 생활문화 중심의 다문화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179-202.
- 이길주, 김연경, 함은혜(2018). 다문화 학급에서의 또래도우미제 운영이 일반 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9(3), 163-179.
- 이연옥, 장덕현(2016). 사서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41-263.

- 이윤정, 이정아(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3-91.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14).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 개발**. 서울: (재)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연구보고서.
- 이철현(2013). 다문화교육 강좌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측정 도구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6(3), 135-160.
- 인사혁신처(2019). **2019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 정명희, 박외병(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81-105.
- 정책기획위원회(2019).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해숙, 안상수, 권소영(2014).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도구개발**.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연구보고서.
- 조상미, 간기현, 전종설, 남성희, 선미정(2012).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4), 103-134.
- 채영란, 유승우(201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1999 년 이후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6), 551-571.
- 최가희(201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279-303.
- 최충욱, 조인제(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1(1), 1-20.
- 함형준, 김정원(201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계 전래동화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11(1), 109-132.
- 황갑진(2010). 다문화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중등 사회과에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7(4), 199-214.
- Abril, C. R. (2006). Learning outcomes of two approaches to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4(1), 30-42.
- Banks, J. A. (2008). **다문화교육 입문 4/E (모경환 외 역)**.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 (2017). Failed citizenship and transformative civic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46(7), 366-377.
- Barden, S. M., & Cashwell, C. S. (2014). International immersion in counselor education: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vestig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2(1), 42-60.
- Bennett, C. I. (2009).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김진호 외 역)**. 서울: 학지사.

- Bennett, M. J.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 21–71.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learinghouse, W. W. (2010). *Developing effective fractions instruction for kindergarten through 8th grade (No. NCEE 2010-403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Earley, P. C., & Peterson, R. S. (2004). The elusive cultural chameleon: Cultural intelligence as a new approach to intercultural training for the global manage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1), 100–115.
- Ferdig, R. E., Coutts, J., DiPietro, J., Lok, B., & Davis, N. (2007). Innovative technologi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eeds. *Multicultural Education & Technology Journal*, 1(1), 47–63.
- Gersten, R., Fuchs, L. S., Compton, D., Coyne, M., Greenwood, C., & Innocenti, M. S. (2005). Quality indicators for group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71(2), 149–164.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 Hopkins, L. E., & Domingue, A. D. (2015). From awareness to action: College students' skill development in intergroup dialogue.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48(3), 392–402.
- Nguyen, D. (2008).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Historical,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issue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7(1), 137–151.
- Petticrew, M., & Roberts, H. (2008). *Systematic reviews in the social sciences: A practical guide*. Oxford: John Wiley & Sons.
- Zelege, W. A., Karayığit, C., & Myers-Brooks, K. (2018). Using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o Develop Students'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6(1), 40–57.

*논문접수 2020년 2월 10일 / 1차 심사 2020년 3월 7일 / 2차 심사 2020년 4월 9일 / 게재승인 2020년 4월 17일

* 임유하: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상담전공 박사과정 중이다.

* E-mail: dada1310@daum.net

* 지은: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재활상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eji@inha.ac.kr

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n Group Teaching Program to Promot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Acceptance for the School-Aged Students : Use of Based Quality Indicators

Lim, Yooha*
Ji, E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studies on the group teaching programs to promote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acceptance for school-aged students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This study selected 17 studies and systematic analysis based on qualitative indicators suggested by What Works Clearinghouse(WWC), established by the U.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IES) was conducted. Result indicated that, First, most participants of the studies conduct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in experimental design of the studies,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was used in a similar proportion to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ird, research settings of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mostly classroom, and the type of intervention were mainly discussion and creative activities. Fourth, some studies aimed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empathy. Fifth, various measuring tools were used. Sixth, every program of the studies has been effective in promot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acceptance. Seventh, none of the studies met all quality indicators, especially most studies did not offer identifying criteria, effect size, maintenance effect.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s were provided.

Key words: School-Aged Students, Multi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Acceptance, Group Teaching Program, Quality Indicators

* Doctoral student,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dada1310@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eji@inha.ac.kr)